

# 거진 1리부터 자산리까지 ‘명태발’

명태산업 호황으로 1973년 거진면 읍으로 승격 ... 인제 ‘용대항태’ 등 벤치마킹 필요

## 고성군의 미래, 명태에게 길을 묻다

### 〈1〉 명태산업 전성기의 추억과 반성

- 〈2〉 ‘고성태’ 브랜드화로 명태의 고장 명성 되찾기
- 〈3〉 명태산업 부활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

고성군은 한때 우리나라 최대의 명태 산지였다. 그러나 이제 명태는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잡히긴 잡히지만 통계를 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조금만 잡힌다. 명태가 많이 잡힐 때 고성군의 인구는 6만5천명을 넘어 7만명을 육박했지만, 명태가 잡히지 않으면서 인구가 줄어 이제는 겨우 3만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고성 앞바다에서 산란하지 않는 명태처럼 고성지역의 신생아 탄생이 줄고 있다. 고성 앞바다로 돌아오지 않는 명태처럼 고향을 떠난 주민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명태에 있다. 마을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명태다. 다행히 고성군이 지난해부터 ‘고성태’ 브랜드를 통해 옛 명태고장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고성군의 미래, 명태에게 길을 묻다’란 제목으로 명태산업 전성기의 추억과 반성, ‘고성태’ 브랜드화로 명태의 고장 명성 되찾기, 명태산업 부활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3회 연재한다. 〈편집자주〉

### 개도 물고 다니다던 명태

고성지역은 1970~80년대만 해도 명태가 풍어를 이뤘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매년 겨울철이 되면 거진읍내 전체가 ‘명태발’이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지나가던 개도 명태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거진에 공터(공터)가 있으면 전부 덕장을 매서 명태를 걸었다고 보면 돼. 11월부터 3월까지 거진 1리부터 자산리까지 명태덕장이 죽 늘어섰지.”

고성지역 명태 건조업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노재호씨(77세)는 이렇게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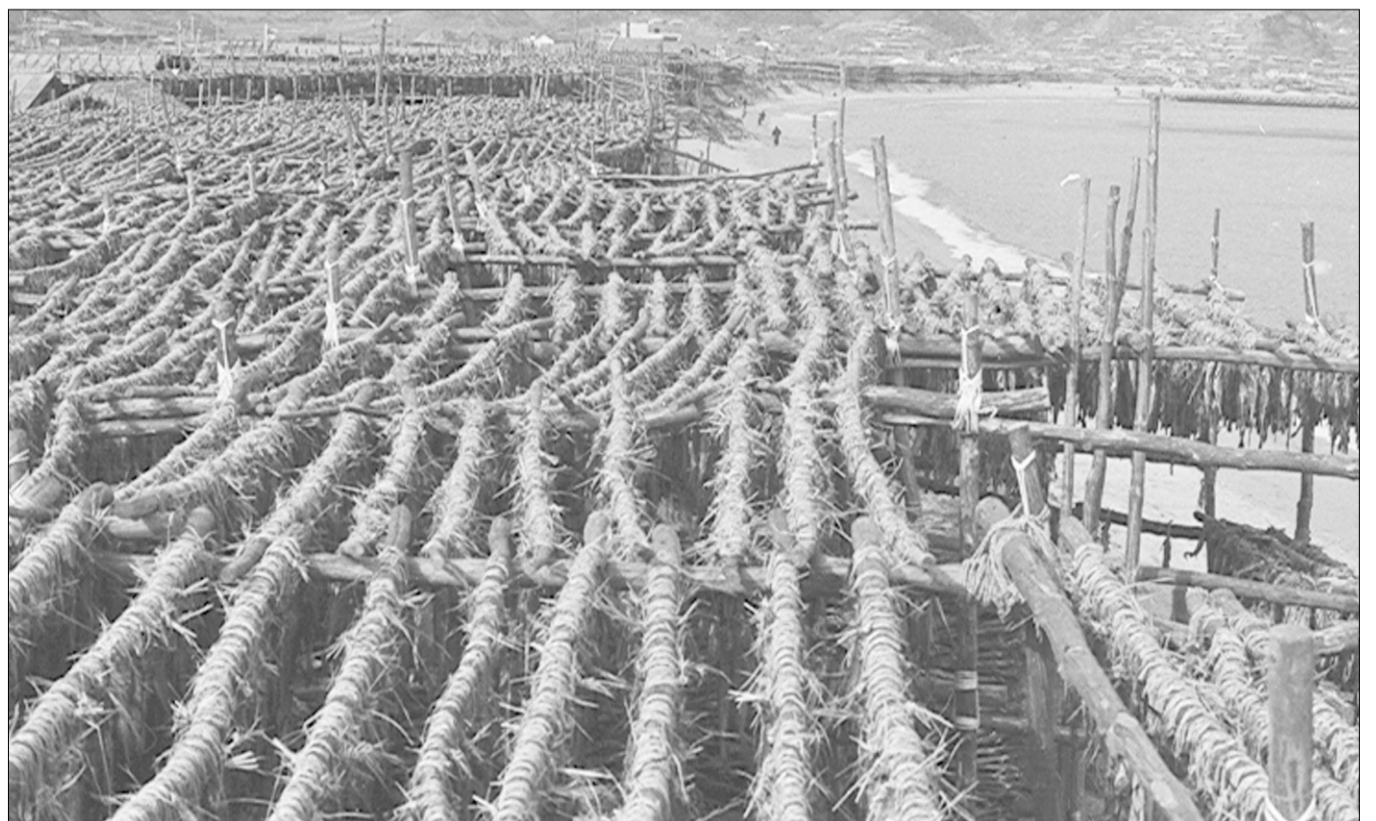
실제로 명태잡이가 한창이던 1980년 고성지역에서 잡힌 명태 어획량은 1만571톤(고성군수협 통계자료, 이하 어획량 같은 자료)이었다. 81년에는 1만7천527톤, 86년에는 1만9천327톤을 기록했다. 이처럼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성에서는 매년 1만톤 이상의 명태가 잡혀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의 명태산지로 명성을 날렸다. 국내산 명태의 65%가 고성산이었다.

이때만 해도 거진을 비롯한 고성지역의 향포구는 명태잡이 어민들로 넘쳐났다. 명태의 주 어장은 거진항에서 연안 10마일 내외에 위치해 있었다. 뱃길로는 불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지만, 어민들은 명태를 잡기 위해 새벽 3~4시경부터 출항에 나섰다. 연승과 유지망 등 명태를 잡는 조업 방법에 따라 출항 시기와 귀항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이른 새벽에 출항해 낮 12시 무렵이면 향포구로 돌아왔다.

### 거진 등 향포구마다 북새통

명태잡이 어선이 향포구로 돌아오는 시간이면 거진어판장 등 각 향포구는 명태를 하선하는 어민들과 그물에서 명태를 떼어내는 아낙들을 비롯해 명태를 거래하는 중매인과 이를 사려는 사람, 즉석에서 할복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뤘다.

사람들이 붐빈 것은 향포구만이 아니었다. 잡아들이는 명태를 건조해 내다파는 건



70년대 거진1리 해안가에 설치된 명태덕장 모습. 현재 거진 신도로 지역으로, 당시 공터가 부족해 모래사장에 덕장을 설치했다고 한다.

조업이 번성해 거진을 비롯한 고성지역 곳곳은 명태 덕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넘쳐났다. 공터가 있으면 모두 덕장 부지로 사용했다. 거진 신도로 인근은 공터가 없어 모래사장 위에 덕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명태 할복에서부터 씻어 덕장에 걸기, 관태 만들기 등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 어촌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농한기를 맞은 농촌 주민들도 작업에 참여해 째째한 수입을 올렸다. 멀리 속초에서 돈 벌이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명태는 잡아들이는 방법에 따라 낚시태와 그물태(또는 망태)로 분류됐다. 당시 주민들에 따르면 낚시태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물로 거래됐으며, 그물태는 대부분 건조한 뒤 거래됐다고 한다.

낚시태는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 마다 낚시 1개씩을 달아 수평으로 부설해 명태를 잡는 방법이다. 연승어업이라고 한다. 연승 어선들은 보통 3천여개의 낚시비늘이 달려있는 연승을 바다에 던져 명태를 잡아 올렸다.

명태 전성기에 거진을 비롯한 고성지역

곳곳에서는 연승어업 장비인 ‘낚시 함지’ 작업을 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손가락 굵기 정도의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 낚시를 걸고, 소금에 절여 꼬들꼬들해진 양미리를 낚시에 끼우는 작업이다. 이것을 ‘낚시 짚는다’고 했다. 낚시태로 잡히는 명태는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잡는 즉시 냉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각 지방으로 판매됐다. 이것을 ‘생태’라고 불렀다.

그물태는 긴 띠 모양의 그물을 어도에 부설해 명태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해서 잡는 방법이다. 유지망어업이라 한다. 명태를 많이 잡는 어부들은 오랜 경험의 축적으로 시기에 따라 어망을 설치해야 할 위치와 수심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 건조 명태의 최고 명품 ‘북어’

명태 건조산업은 명태잡이→명태구입→할복→씻어서 덕장에 걸기→건조→관태→상차→위탁판매 등의 순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건조산업은 어민들이 잡아온 명태를 판

장에서 중매인을 통해 구입한 뒤부터 시작했다. 노재호씨의 경우 보통 할복팀 여자 30명, 씻어서 가는 팀 남자 10명, 북어를 싸리에 끼우는 관태팀 10명 등 50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할복팀에게는 노임으로 창란을 주고, 씻어서 가는 팀에게는 한 두름에 얼마씩의 비용을 지불했다. 관태는 본인들이 싸리를 가져와서 작업했으며, 북어 600마리 1짜당 비용을 계산했다. 관태가 완성된 뒤에는 향운노조에서 묶어서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서울 등지로 보냈다. 서울에 도착한 북어는 수수료를 주고 위탁판매를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과정이었다. 덕장에 걸린 명태는 시기에 따라 북어와 바람태로 불렸다.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덕장에 내걸어 말린 명태를 ‘북어’라고 하고, 이를 전후한 시기인 11월~12월초와 2월말~3월 사이에 말린 명태를 ‘바람태’라고 했다. 맛과 품질은 얼리면서 말리는 ‘북어’를 최상품으로 쳤다. 육질이 부드럽기 때문이었다. 반면 바람태는 얼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으로 말린다고 해서 붙여